

말씀이

육신이

리고니아  
기독교론  
선언문

되어



# 말씀이 육신이 되어

리고니아 기독교 선언문



리고니아 미니스트리

Copyright © 2016 by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제 2판

출판사: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421 Ligonier Court, Sanford, FL 32771  
Ligonier.org | ChristologyStatement.com  
ISBN: 9781567698145

모든 성경 본문은 한글 개역개정 4판에서 인용한 것이고,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에 있다.  
Copyright © Korean Bible Society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식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피상적이거나 무식하거나 완전히 이단적일 수 있다. 예수에 관한 단순한 의견 정도가 아니라 진리는 중요하다. 영원히...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를 따른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기독교론(역자 주: 基督論; *Christology*;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을 가지고 있다. 이 기독교론은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성경 계시의 깊이와 성경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의 성찰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론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상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와 성경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노력해 왔다.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역사적 신앙고백서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분명히 해 왔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고백들은 자주 무시되고 오해되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리고니어 기독교론 선언문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정통적, 성경적 기독교론을 요약한 한 것으로써, 고백하기 쉽고, 교회의 오래 지속될 신앙을 가르치는 데 유용하며, 여러 교회의 신자들이 사명을 위해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공동 고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교회의 역사적 신경이나 고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고백들 전체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는 보충 자료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국을 위해 이 선언문을 사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예언자, 제사장, 왕의 이름으로,

R.C. 스프로울

2016년 봄



우리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우리의 큰 구원을 기뻐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자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탱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참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 안에 두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승천하셨고,  
영광과 심판 가운데,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는 율법을 지켰고,  
죄를 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더러운 걸레와 같은 옷을 가져가시고,  
그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며,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 확증과 부인

성경 구절 포함



제1조                   우리는 예수님이 성삼위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서 성육신 하신 것임을 확증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sup>1</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사람이거나 초기 기독교 교회의 허구적 창작물이었음을 부인한다.

제2조                   우리는 신성의 단일성 안에서 영원토록 나신 성자가 성부와 성령과 동일체 (*homoousios*)이시며 동등하시며 영원하심을 확증한다.<sup>2</sup> 우리는 아들이 단지 하나님과 유사하거나 (*homoiousios*) 그가 단순히 아버지에 의해 그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에 대한 성자의 영원한 종속을 부인한다.

제3조                   우리는 니케아 신경과 칼케돈 신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두 본성이 한 위격으로 영원히 결합되어 있음을 확증한다.<sup>3</sup> 우리는 성자가 창조되었음을 부인한다. 우리는 성자가 신성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영혼이 성자의 역사적 성육신 이전에 존재했음을 부인한다.

<sup>1</sup>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 14).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시 110:1; 마. 3:17; 8:29; 16:16; 막 1:1, 11; 15:39; 눅 22:70; 요 10:30; 20:28; 갈 4:4; 빌 2:6; 골 2:9; 히 5:7; 요일 5:20.

<sup>2</sup>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요3:15-16; 4:14; 6:54; 10:28; 롬 5:21; 6:23; 고후 13:14; 엡 2:18; 딤후 1:9; 뱀전 5시 10분; 유 1:21.

<sup>3</sup>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골 2:9).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눅 1:35; 요10:30; 롬 9:5; 딤후 3:16; 뱀전 3:18.

- 제4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혼합, 혼란, 분열 또는 분리 없이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위격적 연합을 확증한다.<sup>4</sup>  
우리는 두 본성을 구별하는 것이 그들을 분리하는 것임을 부인한다.
- 제5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고유한 속성을 유지함을 확증한다. 우리는 두 본성의 속성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확증한다.<sup>5</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신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신성이 인성에 신적 속성을 전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우리는 성자가 성육신에서 그의 신적 속성 중 어떤 것도 제쳐두거나 포기했다는 것을 부인한다.
- 제6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지적 형상이시며, 참 인성의 표본이시며, 우리의 구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의 형상을 닮게 될 것임을 확증한다.<sup>6</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이 아니었고, 단지 인간처럼 보이셨거나, 합리적인 인간 영혼이 부족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우리는 위격적 연합에서 성자가 인간의 본성(*nature*)이 아니라 인간의 인성(*person*)을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sup>4</sup>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6-17).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눅 1:35, 43; 요1:1-3; 8:58; 17:5; 행 20:28; 롬 1:3; 9:5; 고후 8:9; 골 2:9; 딤후전 3:16; 벰전 3:18; 계1:8, 17; 22:13.

<sup>5</sup>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5-7)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마 9:10; 16:16; 19:28; 요 1:1; 11:27, 35; 20:28; 롬 1:3-4; 9:5; 엡 1:20-22; 골 1:16-17; 2:9-10; 딤후전 3:16; 히 1:3, 8-9; 벰전 3:18; 벰후 1:1.

<sup>6</sup>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5-16).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롬 8:29; 고후 4:4-6; 엡 4:20-24; 히 1:3-4.

제7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으로서 비참한 상태에서 인간 본성의 모든 자연적 한계와 일반적인 연약함을 소유하셨음을 확증한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지으심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것을 확증한다.<sup>7</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유혹, 고난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죄가 참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가 그분의 진정한 인간 되심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8조                   우리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적적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음을 확증한다. 우리는 그녀가 낳은 아기가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 라고 불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칼케돈 신경을 함께 확증한다.<sup>8</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신성을 받았거나 그의 무죄가 마리아에게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sup>7</sup> 그러므로 그가 법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 2:17-18). 다음도 참조하라. 막5:2; 눅 2:52; 롬 8:3; 갈 4:4; 빌 2:5-8; 히 4:15.

<sup>8</sup>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눅 1:26-27).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막 1:23; 2:11; 눅 1:31, 35, 43; 롬 1:3; 갈 4:4.

제9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지점에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마지막 아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그의 백성의 머리이심을 확증한다.<sup>9</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거나 유전받은 원죄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10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 즉 그분이 완전한 삶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확증한다.<sup>10</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점에서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거나 성취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그분이 도덕법을 폐지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sup>9</sup>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 5:12-21).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고전 15:22, 45-49; 열 2:14-16; 5:23; 골 1:18.

<sup>10</sup>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마 3:15; 요 8:29; 고후 5:21; 빌 2:8; 히 5:8.

- 제11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위한 형벌적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음을 확증한다.<sup>11</sup>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의 대속물이었음을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한 예시였거나, 단순한 사탄에 대한 승리였거나, 단순히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표현이었음을 부인한다.
- 제12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이중 전가 교리를 확증한다.<sup>12</sup>
- 우리는 죄가 심판 없이 간과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한다.
- 제13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에게 육체로 나타나셨음을 확증한다.<sup>13</sup>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죽은 것처럼 보였다거나, 그의 영만이 살아남았다는 것, 또는 그의 부활이 단지 그의 추종자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한다.

<sup>11</sup>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롬 3:25-26).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사 53; 롬 5:6, 8, 15; 6:10; 7:4; 8:34; 14:9, 15; 고전 15:3; 엡 5:2; 살전 5:10; 답후 2:11; 히 2:14, 17; 9:14-15; 10:14; 뱀전 2:24; 3:18; 요일 2:2; 3:8; 4:10

<sup>12</sup>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마 5:20; 롬 3:21-22; 4:11; 5:18; 고전 1:30; 고후 9:9; 엡 6:14; 빌 1:11; 3:9; 히 12:23.

<sup>13</sup>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고전 15:3-6).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사 53; 마 16:21; 26:32; 28:1-10; 요 21:14; 행 1:9-11; 2:25, 32; 3:15, 26; 4:10; 5:30; 10:40; 롬 4:24-25; 6:9-10; 엡 4:8-10.

- 제14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죄와 사망을 모두 이기셨으며,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확증한다.<sup>14</sup>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동산 무덤에 묻힌 몸과 전혀 다른 몸임을 부인한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육체와 별개로 우리 영의 부활일 뿐임을 부인한다.
- 제15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는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으며, 현재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확증한다.<sup>15</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시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음을 부인한다.
- 제16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 그의 영을 부어 주셨고 현재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확증한다.<sup>16</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감독을 자신의 대리자로 임명하셨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sup>14</sup>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20, 55).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롬 5:10; 6:4, 8, 11; 10:9; 고전 15:23; 고후 1:9; 4:10-11; 엡 2:6; 골 2:12; 살후 2:13; 히 2:9, 14; 요일 3:14; 계 14:4; 20:14.

<sup>15</sup>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6-11).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눅 24:50-53; 행 1:22; 2:33-35; 엡 4:8-10; 딤후 3:16.

<sup>16</sup>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2).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행 2:33; 고전 11:3-5; 엡 4:15; 5:23; 골 1:18.

- 제17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마침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죽음을 멸하시며 의로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실 것임을 확증한다.<sup>17</sup>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이 주후 70년에 일어났고 그분의 오심과 그에 수반되는 사건들이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 제18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원한 왕국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의식적인 형벌을 받을 것임을 확증한다.<sup>18</sup>
-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이 멸절될 것임을 부인한다.
- 제19조           우리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모든 사람이 그와 교통함을 누리고 서로 교제함을 확증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양자 됨, 성화, 영화를 포함한 모든 영적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확증한다.<sup>19</sup>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이 분리될 수 있음을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부인한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지만 그의 몸인 교회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한다.

<sup>17</sup>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행 10:42). 또한 요 12:48; 14:3; 행 7:7; 17:31; 딤후 4:1, 8.

<sup>18</sup>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41-43).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사 25:6-9; 65:17-25; 66:21-23; 단 7:13-14; 마 5:29-30; 10:28; 18:8-9; 막 9:42-49; 눅 1:33; 12:5; 요 18:36; 골 1:13-14; 살후 1:5-10; 딤후 4:1, 18; 히 12:28; 벧후 1:11; 2:4; 계 20:15.

<sup>19</sup>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또한 요 14:20; 15:4-6; 롬 6:1-11; 8:1-2; 12:3-5; 고전 1:30-31; 6:15-20; 10:16-17; 12:27; 고후 5:17-21; 갈 3:25-29; 엡 1:3-10, 22-23; 2:1-6; 3:6; 4:15-16; 5:23, 30; 골 1:18; 2:18-19.

제20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확증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행위와는 별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그분의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임을 확증한다.<sup>20</sup>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우리가 본질내재적으로 의롭게 된 후에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이 칭의가 현재 또는 앞으로도 우리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21조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기초하여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화 교리를 확증한다. 우리는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칭의와는 다르지만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확증한다. 우리는 이 성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죄에 대해 죽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은혜의 수단에 자신을 헌신할 책임이 있음을 확증한다.<sup>21</sup>

<sup>20</sup>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또한 눅 18:14; 롬 3:24; 4:5; 5:10; 8:30; 10:4, 10; 고전 6:11; 고후 5:19, 21; 갈 2:16-17; 3:11, 24; 5:4; 엡 1:7; 딤후 3:5, 7.

<sup>21</sup>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3-5). 또한 요 17:17; 행 20:32; 롬 6:5-6, 14; 8:13; 고전 6:11; 고후 7:1; 갈 5:24; 엡 3:16-19; 4:23-24; 빌 3:10; 골 1:10-11; 살후 2:13; 히 12:14.

우리는 사람이 성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열매를 즉시 맺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지만 칭의를 받을 만하다는 것은 부인한다. 우리는 이생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재하는 죄와의 투쟁이 중단될 것임을 부인한다.

제22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확증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중보자 역할을 확증한다. 우리는 그가 성부께서 부르신 이 중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확증한다.<sup>22</sup>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성육신을 가지셨거나 가지실 것이라는 점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속의 중보자가 계시거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구원을 부인한다.

<sup>22</sup>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또한 욥 33:23-28; 눅 1:33; 요 1:1-14; 14:6; 행 3:22; 골 1:15; 히 1:1-4; 5:5-6; 9:15; 12:24.

제23조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주체이자 대상이었음을 확증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선포하셨고, 장래 일을 예언하셨으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확증한다.<sup>23</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예언이나 거짓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셨거나 이루지 못하실 것임을 부인한다.

제24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희생을 치르셨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을 확증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속죄 희생의 주체이자 대상임을 확증한다.<sup>24</sup>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부인한다. 우리는 그분이 희생제물과 사제로서, 심지어 피가 묻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미사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우리는 그가 하늘에서만 제사장이 되었고 땅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었음을 부인한다.

<sup>23</sup> 형제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행 3:17-22).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마 20:17; 24:3; 26:31, 34, 64; 막 1:14-15; 눅 4:18-19, 21; 요 13:36; 21:22; 고전 1:20; 히 1:2; 계 19:10.

<sup>24</sup>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4-28). 또한 요 1:36; 19:28-30; 행 8:32; 고전 5:7; 히 2:17-18; 4:14-16; 7:25; 10:12, 26; 뵤전 1:19; 계 5:6, 8, 12-13; 6:1, 16; 7:9-10, 14, 17; 8:1; 12:11; 13:8; 15:3.

제25조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와 영원히 지상의 모든 초자연적인 권세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증한다.<sup>25</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의 정치적 왕국일 뿐임을 부인한다. 우리는 지상의 통치자들이 그분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26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실 때 그의 왕국을 성부 하나님께 넘겨주실 것임을 확증한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며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고 그와 같이 되며 영원히 그를 누리게 될 것임을 확증한다.<sup>26</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류에 대한 다른 소망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름이나 방법이 있음을 부인한다.

---

<sup>25</sup>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고전 15:25).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시 110; 마 28:18-20; 눅 1:32; 2:11; 행 2:25, 29, 34; 4:25; 13:22, 34, 36; 15:16; 롬 1:3; 딤후 2:8; 히 4:7; 계 3:7; 5:5; 22:16.

<sup>26</sup>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전 15:24-28).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사 65:17; 66:22; 빌2:9-11; 뵤후 3:13; 요일 3:2-3; 계 21:1-5; 22:1-5.



# 해설

사용을 위한 제안들



언젠가는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빌 2:11)라는 단 하나의 고백으로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풍성한 의미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기름부음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분은 약속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은 그가 참 하나님 중 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다. 성육신은 경이의 경이이며 놀라운 신비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을 예수 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마 1:21).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는 것은 아주 간결한 일종의 신경이다. 영어 단어 ‘크리드’ (*creed*) 는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의 라틴어 ‘크레도’(*credo*) 에서 유래했다. 이 짧은 신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어떤 이들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신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바울은 이 표현 사용 “크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indeed, we confess*)<sup>27</sup> 둘째, 이 절의 구(*phrase*)들은 운율이 있는 시적 표현되어 있다. 이 구절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이룬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딤후 3:16)

성경 속 패턴은 중요하다. 초대교회가 공의회를 만들고 신경을 만들 때, 그들은 신앙고백의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확립된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sup>27</sup>역자 주, 영어 번역 ESV 는 딤후 3:16을 원문 헬라어 성경을 따라서 “Great, indeed, we confess...”로 번역한다. 한글성경에는 이 “we confess”라는 부분이 번역 상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려움이 닥치자 초대교회가 입장을 취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예전적 필요, 즉 순결한 예배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교회가 신경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히 기독교론에 있어서 사실이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적인 진리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정의하는 특징이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관한 잘 못된 이론들과 싸웠다. 교회의 초기 세기에 여러 집단이 그리스도의 참 인성에 도전했다. 한 그룹인 가현설(假現說) 또는 도시티즘(Docetism)주의자들은 예수가 단지 인간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리우스주의(Arianism)와 같은 다른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에 도전했다. 이런 이단들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후대의 그룹들은 그리스도의 참 인성과 참 신성이 어떻게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지 표현하는 데 오류를 범했다. 초대 교회는 공의회를 소집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경을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도전과 오류에 대응했다. 이러한 신경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풍부한 유산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돈신경을 자료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경은 정통과 이단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경계 표시다.

이 신경들은 교회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롭고 다스리시는 손길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충실하게 선포하도록 인도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구한 가치를 입증하듯이 오늘날에도 그것들은 낭독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신학의 중심에 있고 우리 예배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이 신경들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유다서 1:3) 교회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킬 뿐이다. 신경들은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가시적 교회의 진정한 분열은 종교 개혁 당시에 발생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핵심 쟁점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에 대한 논쟁이 종교개혁을 촉발한 중심 논쟁이었다. 여기에

서 교회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노선을 따라 나누어진다.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sola fide*)를 확언한 반면, 로마 카톨릭은 트론티 공의회 칙령에 따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거부하고 대신에 칭의를 믿음과 행위의 협력의 결과로 보기로 선택한다. 종교 개혁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차이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만물의 최고이자 유일한 머리 되심에 관한 것이었다.

종합하면 초대 교회의 에큐메니칼 신경과 이러한 종교개혁의 강조점들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신실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신경과 다양한 종교개혁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은 신앙의 요약물 제공하고 신앙과 복음에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

말씀이 육신이 됨: 리고니어 기독교론 선언문은 과거의 보고(寶庫) 즉, 에큐메니칼 신경과 종교개혁 신학으로 부터 도출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간결한 진술을 이 세대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다음 세대에 겸허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아마도 이 진술과 그에 수반되는 26개의 확증 및 부인 조항은 이러한 기독교론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과 성찰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선언문 자체가 교회에 유용할 수도 있다. 이 선언문을 공적으로 낭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접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이심을 알게 되길 바란다.

## 선언문

선언문은 6개의 연 또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연은 두 개의 핵심 동사인 ‘고백’(*confess*)과 ‘기쁨’(*rejoice*)과 함께 서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성경의 페이지에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분께만 속한 “감추어진 일”이 있다(신 29:29). 우리는 신학을 할 때 우리의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진술의 주요 초점은 성육신이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로 간결하게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곧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도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공동체적으로 기뻐한다.

두 번째 연은 삼일 하나님의 위격들 가운데 동등한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피며 그의 참된 신성을 강조한다. 이 연은 칼케돈 신경의 칼케돈 공식(formula)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끝난다. 성육신 이후로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계셨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성육신에 대한 설명은 세 번째 연을 차지하는데,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강조한다. 그는 태어났다. 그는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 1:23)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고백한다. 이것이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이다.

네 번째 연에서는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회복된 통찰력을 바탕으로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 측면들이 이어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는 ‘율법을 지켰고’ (능동적 순종) 율법의 대가를 치렀다 (수동적 순종).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흠 없는 어린양이었다. 그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다. 이 연은 전가 교리를 선언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munus triplex*)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유용한 신학적 구조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은 구약에서 각각 중보자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당신의 한 인격 안에서 결합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사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뿐 아니라 현재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보게 된다.

마지막 연은 단순하고 간결한 고백을 확증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모든 참된 신학은 송영, 즉 예배로 인도한다. 결과적으로 선언문은 주요 동사 ‘찬양’으로 끝난다. 지금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 확증과 부인 26개 조항

이 선언문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풍성함을 탐구하도록 초대하는 기독교론 연구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26개의 확증과 부인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각 조항에는 성경 증거가 첨부되어 있다. 각 조항마다 주요한 하나의 완전 문장으로 작성되었으며 보조 설명들이 제공되었다. 이 조항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경계를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제1조는 성육신을 확인하는 서문 역할을 한다.

제2조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주장하고, 3-5조는 한 위격, 두 본성이라는 성경적 기독교론을 제시한다. 6-9조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보여준다. 10-26조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전환한다. 이것들은 구원의 교리를 확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묘사로 끝난다.

부인 조항들은 매우 중요하다. 관용의 시대에 믿음이 부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유행에 뒤떨어지지만,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조항은 교만하고 주제넘게 추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의 안전하고 순수한 범위 안에 머물도록 돕기 위해 제공된다. 요한이서 1장 9절은 “무릇 앞서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니라”고 선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경적 가르침을 앞서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기독교론의 규정된 경계를 넘어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6개 조항들이 선언문의 다양한 행으로 확장됨에 따라 조항들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성경적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왜 새로운 진술이 필요한지 정당하게 물을 수도 있다. 좋은 질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진술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것이 고대와 현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함으로써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가르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역의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

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에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이 선언문이 복음의 아름다움, 필요성, 긴급성 등 복음의 모든 본질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 각 이유를 고려하길 바란다.

### 예배와 교회를 위해

리코니어는 교회를 위해 이 선언문을 겸손한 마음으로 제공한다. 초기 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예전에서 신경을 사용했다. 이 선언문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경은 성경적 가르침의 광대한 지평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선언문과 26개 조항이 교회에서 더 많은 성경적 탐구와 성찰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교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건강에 필수적이다. 교회의 모든 세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정통적 이해를 새롭게 연구하고 확증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 복음을 위한 공통된 추구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 조직, 운동이 있으며, 많은 단체들이 복음의 전진을 돕고 있다. 때로는 건전한 파트너십과 연합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 선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료 형제 자매들을 식별하고 복음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와 같은 때

대학 도시인 옥스포드에는 토마스 차머 (*Thomas Cranmer*), 니콜라스 리들리 (*Nicholas Ridley*), 휴 라티머 (*Hugh Latimer*)와 같은 많은 영국 종교개혁가들의 희생을 기리는 순교 기념비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로마 교회의 오류에 대항하여 확증하고 견지한 거룩한 진리를 증거하

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성한 진리를 믿고 확언하며 지켰다. 그들은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그들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변호하고, 심지어 진리를 위해 고난통을 당하기까지 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자들과 합류했다. 현대 서구 세계의 많은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누렸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세대나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문에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현명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되지 못한 채로 두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이러한 진리는 믿고, 확인하고, 유지하고, 고통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생에 계시는 동안 무리들이 모두 그를 버리고 제자들과만 남겨진 순간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떠날 것인지 물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 6:68-69). 얼마 후, 열두 제자들 중 한 명이 의심을 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었지만 도마는 의심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도마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졌고, 그 상처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당하신 것이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요 20:28).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한다.









